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4 | 2021. 06. 01.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의 진실은?
방호엽

재향군인회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 강화
나태종

신라시대 '박제상'을 통해 바라본 국가관
이영석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의 진실은?

방 호 엽

(통일연구원 프로젝트위원)
(향군 안보교수)

'한반도 비핵화'의 실체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맹외교를 통한 강한 억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비대칭전력인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1991년 12월 남북한 간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핵을 제거하기 위한 최초의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의 근거를 북한은 모두 일방적으로 무너뜨렸다.

지금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정에 주력함은 물론 유일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변함없이 한미동맹 갈등을 부추기고 핵미사일로 군사적인 위협을 지속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능력

지난 4월에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67~116여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7년에는 151~242여개의 핵무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무기를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는 근본적으로 남북한 간 현안 문제이며 세계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비대칭전력에서 특히 핵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간 군사균형을 위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한국은 특단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해서 핵무기의 수와 성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핵의 제2격 능력인 SLBM을 완성하여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우발계획

이것은 우리에게 우발계획(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종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의 한국형 3축 체계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킬 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핵미사일 공격능력을 분별해 내고 공격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를 적시에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게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킬 체인 운용을 위한 한국의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결심은 한미동맹관계에서의 정보력 공유에 대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응한 재래식전력의 신속한 대응은 오히려 선제적 공격에 뒤따르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재래식전력으로 핵미사일에 대항하는 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은 별도의 핵 억지력 마련이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국 사이에 전쟁이 불가능한 이유는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의 균형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핵무기를 고려하여 전쟁을 자제하게 된다. 이러한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억제는 핵무기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래서 실존적 억제(existential deterrence)라는 개념도 생겼다. 실존적 억제란 한 국가가 어떤 핵 전략을 가졌는가에 고려 없이 핵무기의 고유적인 성격 때문에 억제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북한 같은 국가에는 이러한 실존적 억제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방향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핵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핵 보유 및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보유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필요시 서해 5도를 점령한 뒤 핵으로 위협하거나 서울을 핵으로 위협하는 제한된 핵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등의 비대칭전략을 강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한반도에 대량보복, 상호자멸 등과 같은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래식전력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전략 의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 등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지난 61년에 미국원자력위원회와 체결한 특수핵물질 대여협정과 같은 핵무기 대여 등의 지혜로운 핵무기 배치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체제유지의 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 위상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公共外交)활동 강화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면한 북한의 위협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적과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이다. 향군은 안보단체로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해외 22개 지회를 거점으로 활용한 공공외교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공공외교의 개념과 필요성

최근 들어 경향 또는 추세를 의미하는 트렌드(trend)라는 용어와 함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의미하는 메가트렌드(megatrend),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시대, 국제화시대 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은 물론 집단과 국가에 있어서 홍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삶의 질을 가늠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근검절약과 급속한 경제발전을 들 수 있겠지만 ‘총성 없는 전쟁’으로 묘사되는 외교에서의 성공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외교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 외교의 영역인 안보외교와 경제외교에 추가하여 공공외교를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공공외교의 개념은 공공(公共)이라는 글자에 함축된 의미와 같이 공개된 외교의 의미와 소통의 창구를 열고 소통하면서 공감하며 여럿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외교를 포함하고 있다.

환언하자면 20세기에는 한 국가의 정부가 타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하였지만 21세기에는 개별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의 영역이 넓어지고 외교의 주체 면에서 외교관은 물론 각종 단체, 일반국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재향군인회의 공공외교 활동

향군은 안보단체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재난·재해의 극복, 회원 복지증진 및 명예선양, 여성회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 제대군인 단체인 세계재향군인연맹(WVF), 국제한국전참전연맹(IFKWVA), 미 해외참전용사회(VFW), 미국 재향군인회(AL), 주한미군전우회(KDVA) 등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향군인회가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성금 53만 3천불을 모금하여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3만 7천여 명과 미군 배속 카투사 전사자 8천 여명의 명단을 새겨 넣는 ‘추모의 벽’ 건립에 선도적 역할을 한 양국 재향군인회의 교류협력은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공공외교 활동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밖에도 재향군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으로는 미 의회 의원 및 향군 회장단과의 교류협력 활동, 해외동포 대상 안보활동, 한일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한, 6.25전쟁 참전 16개국과 물자지원국을 포함한 우방국 참전전우회와의 우호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군의 공공외교 활동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국민과 해외동포들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고 국가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헌신을 이끌어 냈다. 더불어 외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강점과 장점, 매력 등을 각인시켜 친한화(親韓化)를 유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 고안과 홍보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방안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가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축하 메시지에서 “국가는 마땅히 소중한 재향군인들을 기억하고 잘 돌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재향군인회보다 더 나은 조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향군의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 방안으로

첫째,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향군의 홍보활동을 다각화해야 한다. 현재 세계는 교통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지구촌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외교활동의 영역에 비정부기구, 기업, 시민단체,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군은 정부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의 홍보매체와 향군의 홍보매체인 재향군인회 신문, 코나스, 유튜브 등을 활용한 대내외 홍보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국내 및 해외에서의 문화예술교류활동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군은 국가의 부름에 자발적으로 나서 군복무를 마친 전우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여느 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폭넓은 네트워크와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문화예술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쌍방향 교류를 통해 상호작용과 상승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된다면 재향군인회의 위상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구촌 시대에 걸 맞는 스토리텔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구촌시대이다. 지구촌을 아우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향군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위촉된 자문위원, 안보교수, 명예교수, 평생교육원의 강사 등이 참여하여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엄선하여 국내외로 배포함으로써 ‘튼튼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얻을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과 더불어 국가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 국민과 외국의 시민에게도 이해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라시대 ‘박제상’을 통해 바라본 국가관

이 영 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신라시대 박제상(朴堤上)이 몸소 실천한 나라사랑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대에게 국가관과 안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신라의 상황과 박제상

박제상이 활동하던 때인 신라는 고구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남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 화친을 맺었으나 백제 독산성의 성주가 신라로 망명함으로써 백제와는 다시 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구려가 신라에 접근하여 신라를 백제로부터 완전히 등 돌리게 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백제를 계속 공격하였으며 신라는 고구려에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자 신라는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고구려는 5만 명을 파견하여 일본을 물리쳤다.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이로 인해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신라에 간섭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침략 행위는 계속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당시 신라 17대 왕인 내물마립간은 셋째 왕자인 미사흔을 일본에, 둘째 왕자인 복호를 각각 고구려에 인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박제상, 신라의 왕자를 구하다.

시간이 흘러 내물마립간의 장남인 눌지마립간이 19대 왕이 되자 인질로 가 있는 동생들을 귀국시키려고 하였다. 대신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박제상을 사신으로 보내면 인질로 가 있는 왕의 동생들을 구해올 수 있다고 하였다.

왕이 박제상을 불러 의견을 묻자 그는 흔쾌히 왕의 명을 받들겠다고 하였다. 박제상은 고구려로 가서 장수왕을 설득하여 왕의 둘째 동생인 복호와 함께 귀국하였다. 그러나 왕은 일본에 인질로 있는 셋째 동생 마시흔이 생각나서 다시 박제상에게 동생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박제상은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라를 배반한 자로 몰고 이를 일본에서도 알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일본에 가면 살아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자식도 만나지 않고 울포(栗浦, 지금의 울산)에서 일본으로 출발했다.

일본에 도착한 박제상은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친 것처럼 했으나 일왕과 대신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 당시 백제 출신으로 와있던 한 사람이 신라가 고구려와 함께 일본을 치려고 한다고 일왕에게 알렸다. 일왕은 군사를 신라에 보내 첩보를 수집 중이었는데 그때 고구려 군이 일본의 정찰병을 알고 잡아 죽이자 일왕은 백제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

아울러 신라에서 박제상의 가족을 옥에 가두었다는 첩보를 듣고는 박제상이 신라를 배반한 사람으로 믿게 되었다. 한편 박제상과 미사흔은 도망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여 감시하는 일본군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박제상은 미사흔에게 몰래 신라로 돌아갈 것을 권하면서 탈출 전략을 알려주었다. 드디어 미사흔을 탈출시킨 후 박제상은 늦게까지 자는 것처럼 꾸몄다.

미사흔이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일왕은 무척 화를 냈다. 박제상은 결박되어 끌려 나왔다. 일왕은 “너는 어째서 너의 나라 왕자를 탈출시켰냐?”고 묻자 박제상은 “저는 신라의 신하요, 일본의 신하가 아니다.” 일왕은 박제상에게 일본의 신하라고 하면 후한 상과 관직을 주겠다고 하자 “차라리 신라의 개·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일왕은 박제상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 그 위를 걷게 한 다음 다시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 신하냐?” 박제상은 “신라의 신하다.”고 하였다. 또한 달군 쇠 위에 세워놓고 물었다.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박제상은 거듭 “신라의 신하다.”라고 하였다. 일왕은 박제상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키지마(木島)란 섬에서 불태워 죽였다.

재향군인회는 올바른 안보관, 국가관을 갖게 하는 보루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하지만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된 지금 현세대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크게 변했다. 일부 대학생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노골적으로 김정인을 칭송하기까지 한다. 이들의 삐뚤어진 안보관을 바로 잡고 교육하는 것이 재향군인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대 탓만 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진보와 보수, 지역과 지역 간, 빈부와 노사 간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대로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나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과거지향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제상과 같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호국영령들의 사례를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최대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적격이다. 재향군인회야말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게 하는 최종 보루라고 확신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